「신종교연구」 제26집 (2012) : 145~181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

안 후 상
고창북고등학교 · 교사

1. 머리말
2. 비밀결사적 조직운동과 '풍설'
3. 보천교의 '자금'과 민족운동
4. 일제의 회유와 '보천교 공개'
5. 맺는말

국문요약

1921년 보천교(普天敎)는 비밀리에 고천제(告天祭)를 준비하였다. '고천제는 천자(天子) 등극식'이라는 풍설이 떠돌았다. 이러한 풍설은 민중을 집합적 성향으로 만들었고, 일제는 민중의 이러한 성향을 예의 주시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고하고 풍설 자체가 일제를 긴장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일제가 긴장한 것은 앞의 풍설을 퍼트리는 민중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1918년 제주에서의 민중 봉기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일제를 긴장시킨 또 하나의 보천교의 활동은 바로 '교금(敎金)'이었다. 일명 '청송(靑松) 사건'이나 '김홍규(金洪奎) 사건'은 보천교의 교금이 민족운동가들에게 지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제의 수사였다. 그런데 '김홍규 사건'의 이면은 그리 단순치가 않다.

'김홍규 사건'의 시작은 방주(方主) 김영두(金英斗)의 교권 장악 음모에서 비롯되었다. 교금을 탈취했다가 궁지에 몰린 김영두가 '고천제는 천자 등극식'이라고 경찰에 밀고하면서 불거졌던 게 '김홍규 사건'이다. '김홍규 사건'은 우연한 계기로 불거졌지만 거금을 수합할 수 있는 보천교가 비밀결사체라는 점, 거금이 국내외의 민족운동 세력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 등을 일제는 크게 우려하였다.

일제는 '청송 사건'과 '김홍규 사건' 등을 계기로 보천교의 고천제를 무산시키려고 하였다. 더불어 비밀스런 교조직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였다. 교조직은 워낙 비밀스러웠기에, 일제의 물리적 탄압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종교 선도주의

(善導主義)'라는 기만책도 교조직이 드러나야만 구사할 수 있었다.

보천교는 운동의 정점이라 할 고천제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일제는 교단을 공개하면 고천제를 묵인할 태세였다. 따라서 보천교는 '고천제의 개최'와 '교단의 공개' 모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보천교의 공개는 형식상 교단의 반(半)공인을 의미하지만 일제의 기만책에 대한 보천교 측의 무방비를 의미한다.

한편, 보천교의 교금 일부가 국내외의 민족운동가들에게 지원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보천교 운동의 지향점은 분명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당시 거금을 수합할 수 있는 민중의 조직체인 보천교를 일제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 뿐 아니라 민족운동가들도 보천교를 주시하였다. 전근대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보천교 운동은 아직 근대적 의식을 채 갖추지 못한 민중들의 바람이었다. 민족운동가들은 민중의 조직과 자금의 가능성을 기대했고, 일제는 민족운동가들이 기대했던 보천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교조직의 공개를 획책하였다.

주제어 : 보천교(普天敎), 고천제(告天祭), 김홍규(金洪奎), 청송(靑松) 사건, 종교 선도주의(善導主義), 교조직의 공개(公開), 민족운동가, 일제, 식민지시기

1. 머리말

'보천교(普天敎)'라는 이름 이전의 보천교의 실상을 당시 사람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보천교가 비밀결사적 조직체였기 때문이다. '보천교'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해는 1922년 음력 2월. 이때부터 보천교는 공개적으로 종교를 표방하였다.[1] 보천교가 공개적으로 종교를 표방한 것을 본고에서는 '보천교의 공개'라고 하겠다.

1) '普天敎'라는 이름 이전의 보천교는 太乙敎, 仙道敎, 흠치교, 천자교 등으로 불렸다. '보천교'는 1922년 교단에서 표명한 이름이다. 교명이 표명되기 이전에 일제는 車月谷(車京石)의 일파를 仙道敎로, 姜甑山의 수제자로 통하는 金亨烈 일파를 太乙敎로 파악하였다. 차월곡과 김형렬은 1914년까지는 강증산의 유지를 받든 종교적 형제지간이었다. 따라서 일반에서는 양자를 혼동하였고, 증산교계 신종교 교단을 太乙敎라 통칭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는 대체로 차월곡의 일파를 '太乙敎'라 표기하였다. 그 이유는 김형렬 일파가 당시 차월곡의 일파에 비해 그 세가 미약했고, 당시 언론이 김형렬과 차월곡을 한 통속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1922년에 공개되었지만, 1921년경부터 언론은 보천교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언론의 주된 관심은 다름 아닌 '경찰의 보천교에 대한 물리적 탄압'이었다.[2] 언론이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보천교가 빠르게 성장한 까닭도 있었다. 한국 사회 제일의 신종교 활동은 보천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정도로, 당시의 보천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3] 일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보천교를 의심하였고 물리적 탄압도 마다하지 않았다.[4] 당시의 보천교와 같은 신종교(新宗敎)를 일제는 민족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5]

보천교에 대한 일제의 물리적 탄압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유는 보천교가 비밀스런 연원제(淵源制)를 바탕으로 한 주송수련과 예언, 기도 등을 통해서 교세를 확산시켜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던 1922년 2월(음)에 보천교는 <보천교진정원(普天敎眞正院)>이라는 간판을 서울에다 내걸었다.[6] 이처럼 보천교의 공개는 보천교라는 교명과 그의 교리와 교체(敎體)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종교로의 탈바꿈을 시도한 계기였다.

공개 직후에 교단 밖의 신진 지식인들과 언론은 보천교를 사이비라고

2) <仙道를 표방하는 비밀단체 대검거>, ≪동아일보≫ 1921.4.26; <선도교도 대검거. 경상북도 중심으로 한 비밀결사, 닥치는대로 체포>, ≪조선일보≫ 1921.4.12.

3)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韶和八年・十三年』(1933・1938年 合本), p.115;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p.122; 윤이흠 외, 『日帝의 韓國 民族宗敎 抹殺策－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서울: 고려한림원, 1997), p.188; 윤선자, 『韓國近代史와 宗敎』(서울: 국학자료원, 2002), p.681.

4) 『조선일보 항일기사 색인－1920-1940－』(서울: 조선일보사, 1986, pp.552-555)은 일제의 탄압을 받았거나 항일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기사들을 수합, 분류해 놓은 자료집이다. 모호한 내용까지도 항일로 구분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일제의 보천교 탄압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임은 분명하다. 앞의 자료를 가지고서 필자가 임의로 낸 통계는 다음과 같다.

종교명	종교일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보천교 (아래는 異名)			청림교	기타 종교
							보천교	태을교	흠치교		
항일 기사 수	6	23	2	18	15	32	83	9	55	17	11
합계	6	23	2	18	15	32	147			17	11

5) 윤선자, 앞의 책, pp.47-48.

6) 李英浩, 『普天敎沿革史(上)』(井邑: 普天敎中央協正院・敎總正, 1948), p.31; 李正立, 『甑山敎史』(金堤: 甑山敎本部, 1977), p.90.

매도하였고, 식민 통치자들은 보천교를 통치에 이용하려고 하였다. 급기야 보천교는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이라는 어용 단체를 만들었다가 세간의 '보천교 박멸운동'을 불러일으켰다.[7] 이처럼 교조직의 명운을 갈랐다는 점에서 교조직의 공개 문제는 보천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천교에 대한 연구 자체가 희박하다보니 보천교의 공개와 같은 세부적인 연구를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8] 보천교의 공개를 그나마 부분적으로 언급했던 김정인은 그의 글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에서, 교단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체제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천교 스스로가 교조직을 공개했다고 하였다.[9] 교조직의 공개를 근대적인 조직으로의 능동적 전향 정도로 파악한 것이다. 조경달(趙景達)은 그의 글 「植民地朝鮮における 新興宗教の 展開と 民衆－普天教の 抗日と 親日」(上)에서 보천교가 조직을 공개한 것은 일제의 끈질긴 탄압과 회유 때문이라고 하였다.[10] 김정인의 앞의 글과는 달리 조경달은 일제의 의구심의 대상, 더 나아가 탄압과 회유의 대상으로서 보천교를 언급하였다.

7) <훔치敎撲滅에 徹底를 期하라>, ≪동아일보≫ 1925.4.6.

8) 지금까지 보천교 연구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시각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김정인의 아래(주 9번)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로부터 탄압받은 것은 보천교가 민족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안후상이나 김재영의 연구다. 윤이흠이나 趙景達도 보천교가 민족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탄압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김정인을 제외한 앞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보천교가 국권 회복과 새 정부 수립을 도모했다'라는 당시의 기록을 중점 반영하였다. 참고로 아래 성주현의 글은 '보천교'와 '태을교'를 별도의 종교조직과 활동상으로 서술한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 다. 앞의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안후상, 「日帝下 普天敎運動－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상・하), 『남민』 제4・5집 (서울: 서해문집, 1992・1995); 안후상, 「普天敎와 物産奬勵運動」, 『한국민족운동연구』 19 (서울: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8); 김재영,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 31 (2007); 윤이흠 외, 『日帝의 韓國 民族宗敎 抹殺策－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성주현,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서울: 국학자료원, 2002); 趙景達, 「植民地朝鮮における 新興宗教の 展開と 民衆－普天教の 抗日と 親日」(上・下), 『思想』(2001.2・3) (東京, 岩波書店, 2001).

9)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普天敎의 浮沈과 民族運動」,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서울: 국학자료원, 2002), p.165. 김정인은 앞의 글에서 일제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선전에 의해서만 보천교가 似而非宗敎로 '매도' 당한 것이 아니라, 민족운동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전근대적인 틀을 여전히 묵수하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일삼는 보천교는 邪敎이고 미신놀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앞의 글, p.184.).

10) 趙景達, 앞의 책, pp.78-81.

김정인의 주장처럼 보천교가 근대 종교로의 탈바꿈을 시도했다면, 시도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어떤 노선이나 신앙의 행태 등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그 같은 변화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천도교와는 달리 현존하는 보천교에서도 근대 종교다운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11]

조경달의 견해에서처럼 일제의 탄압과 회유가 보천교를 공개시킨 직접적인 배경이라면, 일제를 긴장시킨 공개 이전 시기의 보천교의 활동상은 공개의 간접적인 배경이 된다. 본고의 주된 관심사는 공개의 간접적인 배경, 즉 공개 이전 시기의 보천교의 활동상이다. 일제의 탄압과 회유가 보천교의 공개로 이어졌다면 탄압과 회유에 따른 보천교의 대응은 본고의 관심사이다.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을 고집했던 보천교에 대한 일제의 대응은 물리적 탄압 일변도였다. 1921년 보천교가 고천제를 준비할 무렵에 일제는 또 다른 이유로 긴장을 했고,[12] 그 다음 해에 교조직이 공개되었다. 공개 직전의 일제의 긴장감, 그리고 그 긴장감의 한 원인이 되었던 보천교의 활동상은 보천교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본고는 공개 이전 시기의 보천교 운동의 한 형태인 '비밀결사적 조직운동과 풍설'을 통해서 교운동과 풍설 간의 상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공개 직전에 불거졌던 '보천교의 자금과 민족운동'에서는 일제의 보천교에 대한 긴장감의 한 원인을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일제의 회유와 보천교의 공개'를 교단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교조직의 공개 배경이 갖는 몇 가지 의미들을 생각하겠다.

보천교의 비밀결사적 조직운동과 관련해서는, 1921년 전후의 식민통치 관련 기록이나 각 언론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생각이다.[13] 하지만 고천제의 개최나 교조직의 공개 등에 관한 것은 언론이나 식민

11) 현존하는 보천교는 아직도 유교적인 도덕지상주의와 복고적인 규범의식을 고집하고 있다.

12) <십만원 독립자금>, ≪동아일보≫ 1921.10.29; <갑자년 3월 15일에 차황제 출현설>, ≪동아일보≫ 1921.6.22.

13) <獨立運動하던 太乙敎 信者, 오는 이십일일 … 이심판결>(≪조선일보≫ 1921.2.19)과 같은 기사는 식민 통치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통치의 기록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따라서 교단사를 참고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그간의 연구자들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해왔던 『보천교연혁사(普天敎沿革史)』나 『증산교사(甑山敎史)』 등은 교단사로서, 앞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보천교연혁사』는 보천교의 공식 교단사인 반면에 『증산교사』는 보천교 간부이자 신진 지식인 이성영(李成英; 다른 이름은 李正立)의 저술이다. 조경달은 앞의 그의 글에서 앞의 두 교단사를 참고하였다.

보천교 전반의 연구를 위해서, 더불어 문화 통치기의 일제의 긴장감의 한 원인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본 연구는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제의 신종교 탄압의 한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보천교의 공개는 하나의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천교는 한국의 근대사에 있어서 매우 낯선 주제이지만, 당시의 신진 지식인과 언론 등이 적잖이 주목을 했고 식민 통치자들이 긴장을 했던 점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비밀결사적 조직운동과 '풍설'

1918년에 제주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는데 보천교와 관련이 있었다. 급기야 일제는 '보천교는 조선을 독립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불순한 단체'라는 혐의를 품게 되었다. 이러한 혐의는 민중 사이에 떠도는 풍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풍설에 긴장한 일제가 취한 보천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당시의 풍설은 민중과 식민지 통치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2.1. 비밀결사적 조직과 '법정사 항일항쟁'

보천교는 외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연원제(淵源制)를 유지하였다.[14] 연원제를 바탕으로 하는 보천교의 조직은 비밀스러웠다. 공개 이전의 보천교는 조직을 이끄는 논리나 이론이 체계적이지 못하였고, 따라서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미약했다. 당시의 보천교를 근대 종교(Religion)로도 볼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적어도 공개 이전의 보천교는 그러했고, 일제는 한때 보천교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1914년과 19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제는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고 대사상(大思想)과 신통 묘술로써 새 정부를 조직하려 한다'는 혐의를 갖고서 교주격인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 1880~1936. 이하 차월곡이라 약함)을 체포하였다.[15] 일제는 보천교가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수상한 결사체로 파악한 것이다.[16] 1916년에는 보천교 특유의 비밀결사체인 24방주제[17]가 만들어졌다. 일제는 1917년에 교금 수취의 혐의로 또다시 차월곡을 체포하였다.[18] 이 외에도 차월곡은 여러 차례 체포되었으나 경찰은 앞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교조직이 확장되면 될수록 일제의 감시는 심해졌고, 차월곡은 일제로부터 '갑종요시찰인(甲種要視察人)'으로 낙인 찍혀서 수배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19] 1917년 9월에 차월곡은 결

14) 윤이흠 외, 『日帝의 韓國 民族宗敎 抹殺策－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p.86. 연원제란 새로 입교한 사람을 입교시킨 사람 밑에 두는 일종의 피라미드식 조직이다. 1920년대 초반의 천도교는 혁신 운동으로 연원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반면에 공개 이후의 보천교는 연원제를 계속 유지하였다.

15) 李英浩, 앞의 책, pp.1-3;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敎』(朝鮮總督府中樞院, 1935), pp.312-316. 차월곡(1880~1936)은 延安人으로, 본명이 輪洪, 京石은 字다.

16)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八年・十三年』(1933・1938年 合本), pp.111-132.

17) 24方主制란 차월곡을 중심으로 24節侯를 응용해 만든 보천교 간부 조직이다.

18) 村山智順, 앞의 책, pp.312-316.

19) 『普天敎一般』(『管內最近の狀況說明資料(全北)』 附錄, 1926년 6월. 日本學習院大學東洋文化硏究所(友邦協會) 소장), p.189. 1926년에 작성된 『普天敎一般』은 <大正十五年六月 普天敎一般 秘 全羅北道>라 쓰인 비밀 문건이다. 보천교 교조 및 교주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교의 제사와 주문, 포교 수단, 성전 건축 상황, 내홍과 분열 등의 정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총 230쪽에 이른다. 전라북도 지사를 역임한 渡邊忍 재임기간(1926~1929)에 작성된 내사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자료는 木浦大 최연식 제공).

국도피의 길을 걸었으며,[20] 1922년 교조직이 공개된 직후에도 그의 수배는 해제되지 않았다.[21]

당시 보천교에 대한 경찰의 혐의 내용은 ①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 ② 새 정부를 건설하며, ③ 차월곡이 天子로 등극하고, ④ 차월곡이 천자가 되었을 시에 믿고 따르는 이들은 높은 관직을 갖게 된다는 것 등이었다.[22] 이러한 내용은 3·1운동 이전의 보천교의 활동까지 언급하는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식민 통치 관련 기록물 등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23] 보천교의 앞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방증돼 나타난 사건이 제주에서 발생하였다.

1918년 10월에 제주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이름하여 '법정사 항일항쟁'이다.[24] 차월곡은 법정사 항일항쟁의 주모자로 몰렸다.[25] 경찰은 김연일(金蓮日) 이하 봉기를 주도한 이들을 검문, 검색하던 중에 교금(敎金)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던 제주 교인 문인택(文仁宅)을 목포에서 체포

20) 『普天敎一般』, p.189.

21) 李英浩, 앞의 책, pp.15-30.

22) <태을교 두목 검거>, ≪동아일보≫ 1921.4.30;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태을교도 대검거>, ≪동아일보≫ 1921.5.13; <회복단원 또 체포>, ≪동아일보≫ 1921.5.14; <태을교인의 독립운동>, ≪동아일보≫ 1921.8.6; <무과출신으로 독립운동>, ≪동아일보≫ 1921.10.30; <독립운동 하는 태을교 신자. 오는 21일에 2심 판결>, ≪조선일보≫ 1921.2.19; <선도교도 대검거. 경상남북도 중심으로 한 비밀 결사, 닥치는 대로 체포>, ≪조선일보≫ 1921.4.12; <흠치교의 일부인 허무맹랑한 선도교. 흠치교에서 분리한 선도교, 대정 13년 3월 5일에는 교주가 왕이 된다고 유혹. 교도 100여 명을 일망타진>, ≪조선일보≫ 1921.4.26; <국권 회복을 요망하는 태을교도의 검거. 이 교만 믿으면 만병회춘. 교주는 조선 황제된다고>, ≪조선일보≫ 1921.5.13.

23) <太乙敎徒逮捕, 제천식 중 십삼명 체포>, ≪동아일보≫ 1920.6.3; <太乙敎徒 公安妨害, 안동에서 삼백 명 이상을>, ≪동아일보≫ 1921.4.7; <甲子年 3월 15일에 차황제 출현설>, ≪동아일보≫ 1921.6.22;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韶和八年·十三年』(1933·1938年 合本), p.114.

24) 대체로 보천교와 관련한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의 연구로는 안후상의 「濟州 法井寺 항일항쟁 연구」(『종교학연구』 15, 서울: 서울대종교학연구회, 1996)와 김정인의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제주도연구』 22, 제주: 제주도연구회, 2002) 등이 있다. 앞의 논문들이 발표되기 이전의 법정사 항일항쟁은 '보천교의 난' 또는 '보천교 사건' 등으로 불렸었다. 관련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부터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불리다가, 최근 서귀포시 주도의 법정사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정사 항일항쟁'이라는 용어가 공식 채택되었다. 항쟁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 90주년기념 학술세미나"(2008.11.22. 관음사)에서 윤봉택(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의 「법정사 성역화사업 경과 발표」 중에서).

25) <仙道를 표방하는 비밀단체 대검거>, ≪동아일보≫ 1921.4.26; <흠치교의 일부인 허무맹랑한 선도교>, ≪조선일보≫ 1921.4.26.

하였다.[26] 문인택을 심문한 경찰은 차월곡의 이종누이이자 강증산(姜甑山, 1871~1909)과 함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주도한 고판례(高判禮)와 차월곡의 아우 윤칠(輪七) 등 핵심 인물 18명을 체포하였다. 체포된 이들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결국은 비밀결사체인 24방주 조직이 탄로나면서 보천교인에 대한 검거 선풍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27]

보천교의 비밀결사체가 경찰에 포착되면서 사망자는 속출했다. 법정사 항일항쟁으로 인하여 구속, 수감된 보천교 간부 김문진(金文振)이 출옥 직후에 형독으로 사망했으며, 1920년 6월에는 차월곡의 아우 윤칠조차 형독으로 사망하였다.[28] 법정사 항일항쟁을 주도했던 보천교인 박주석(朴周錫) 역시 복역 중 사망하였다.[29] 이처럼 일련의 사건은 보천교 조직을 더욱 더 비밀스럽게 만들었다. 경찰의 끊임없는 소환, 조사에도 차월곡 이하 주요 간부들에게서 '조선을 독립시키고 새 정부를 수립하려 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백이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제의 이러한 탄압 일변도에서도 교조직은 날로 확산돼가고 있었다.[30]

1918년 제주에서의 항일항쟁은 보천교 지도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보천교 운동의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당시 보천교의 활동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민족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하

26) 文仁宅은 뒤에 普天敎濟州眞正院 叅正院長을 지냈다(「各眞正院及正敎部」, 『普光』 창간호 (서울: 普光社, 1923.10), p.58).

27) 李英浩, 앞의 책, pp.6-7; 金正明 編, 『明治百年史叢書－朝鮮獨立運動 (第1卷分册, 民族主義運動篇)－』 (東京: 原書房, 1967), p.247. 당시에 검거된 교인이 3만여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李正立, 앞의 책, p.89).

28) 李英浩, 앞의 책, pp.7-13.

29) 『刑事事件簿』 (第29號,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檢事局, 1918); 『受刑人名簿』 (光州地方法院 濟州支廳, 1918); 「濟州道 騷擾 事件」, 『暴徒史編輯資料高等警察要史』 (日帝警察極秘本 影印版), pp.265-266.

30) 연도별 교세는 1921년 26,419명, 1922년 25,132명, 1925년 35,106명 등으로 나타났다(村山智順, 앞의 책, pp.531-537). 앞의 교세 관련 통계는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경찰부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심문에 의한 것, 또는 경찰이 밀정을 파견해서 조사한 것 등이 있으며, 따라서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당시 신종교 교단은 다분히 비밀 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 진상이 은폐되기가 쉽다는 것이다. 보천교가 강제 해산 당하는 1930년대 중반에 보천교 본소를 수색하던 고등과장은 교세를 5만 호로 추정하였다고 한다. 1호당 5명의 가족이라고 할 때 대략 25만 명에 이른다(趙景達, 앞의 책, p.138에서 참고).

더라도, 1918년 전후의 보천교는 강증산의 유훈 실천에 그 노력을 기울였다. 강증산의 유훈인 '지상(地上) 선경사회(仙境社會)의 건설(建設)'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분히 주송수련(呪誦修鍊)과 기도, 예언에 진력하였던 것이다. 교인들은 주송수련과 기도를 통해서 병들고 모순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으며, 지상 선경사회 건설을 저해하는 식민지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언젠가는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2.2. 고천제와 '풍설'

1919년 9월(음)에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덕암리 대황산(大篁山)에서 천제(天祭)가 거행되었다. 보천교의 첫 번째 고천제이다. 특정한 날에 중차대한 일을 하늘에 고(告)하는 고천제는 지상선경 세계의 건설이라는 강증산의 유훈 실천과도 관련이 있었다. 첫 번째 고천제를 계기로 24방주제가 60방주제로 확대되었고, 그 아래에 6임이 설치되었다.[31] 60방주란 교정(敎正), 교령(敎領), 포주(胞主), 운주(運主) 등의 위계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60명의 핵심 간부 조직을 말한다. 법정사 항일항쟁으로 검거 선풍이 휩쓰는 가운데에서도 보천교의 비밀스런 조직은 이렇듯 확장되었다.

첫 번째 고천제 때부터 차월곡이 새 정부의 황제가 된다, 라는 풍설(風說)이 있었다. 풍설의 진원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보천교 내부에서도 '고천제는 천자 즉위식'이라는 풍설을 기정사실화한 측면이 있다.[32] 이러한 풍설은 보천교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켰다. 교조직 안팎으로 앞의 풍설이 횡행하던 때에 민중은 보천교를 중심으로 결집되는 듯이 보였다. 당시의 여러 자료에는 보천교의 교세를 수십만 또는 수백만이라고 표기할 정도였다.[33] 어쩌면 당시의 보천교 자체가 거대한 민중 조직체였는지도 모른다.

31) 李英浩, 앞의 책, pp.8-10.

32) 필자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보천교 탄갈자나 탄갈자의 직계 후손 53명의 구술을 들었다. 이들 가운데 47명은 '고천제는 천자 등극식'이라는 풍설을 믿고서 입교했으며, 이후에 정읍 대흥리로 이주하였다고 하였다. 탄갈자란 개인의 전 재산을 교단에 내놓고 본소가 있는 정읍의 대흥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33) <風說이 傳하는 太乙敎(一), 갑자년 사월을 기하여 계룡산에 차황제, 교도가 수십만에 달한다는 태을교의 내막은 과연…>, ≪동아일보≫ 1922.2.20. 일제는 "…소요 사건 이후에 천도교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천도교를 능가하여, 점차 교세를 확장하여 한때 교도 백만 명을 불러 모으기에 이르렀다."고 피력하기도 하였다(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韶和八年・十三年』, p.114).

보천교의 고천제를 세간에서는 천자등극 운동으로 이해하였는데, 보천교가 실제로 왕국을 건설하고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는지, 또는 차월곡이 실제로 천자가 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그러함에도 일제는 민중 사이에 떠도는 앞의 풍설로 형성된 민중의 집합적 성향을 예의주시하였다.

민중은 사회적・정치적으로 권세 획득을 희망하였다.[34] 『정감록』과 강증산의 영향으로 형성된 지상 선경사회 건설이라는 의식화된 종교 교의를 새 정부수립 운동으로 왜곡해서, 당시의 민중은 받아들였던 것 같다. 왜곡된 민족의식인 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다보면, 민중의 바람이 담긴 이 같은 풍설은 보천교의 조직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천교 조직을 통해서 앞의 풍설이 확대 재생산된 시기는 두 번째 고천제를 준비할 무렵인 1921년이다. 1921년에는 보천교가 조선을 독립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풍설이 공공연하게 떠돌았기 때문이다.[35] 이러한 풍설은 곧 혐의가 되었으나 그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앞의 혐의가 일제에 의해서 입증되기 어려운 현상을 두고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에 대한 일제의 과민 대응일 가능성이다. 3・1운동의 실패로 좌절감을 맛보았던 민중이 보천교의 조직운동에 합류함에 따라, 일제가 이에 과민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당시 민중의 염원이던 국권 회복과 새 정부 수립이라는 풍설은 보천교에 의해서 먼저 제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의 풍설은 보천교의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한 측면도 있다. 『정감록』과 강증산에서 비롯된 새 왕조의 개창이라는 풍설은 보천교 운동을 활성화시킨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36]

34) 村山智順, 앞의 책, pp.8-9.

35) <갑자년 3월 15일 차황제 출현설>, ≪동아일보≫ 1921.6.22; <갑자년을 기약하고 독립운동, 태을교도 공소>, ≪동아일보≫ 1921.10.7; <怪敎 太乙－甲子年 4월을 기하여 鷄龍山에 車皇帝－>, ≪동아일보≫ 1922.2.21; <분교 중에 준동하는 시국대동단(3)－稻藁中 藏身術, 천자를 꿈꾸고－>, ≪동아일보≫ 1925.1.14.

풍설이란 민중의 심성의 다른 표현이라고 한다. '천자등극설'이나 '새 왕조 개창설' 등은 당시 종교라는 틀 속에서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민중의 심성인 셈이다. 이러한 심성은 민중으로 하여금 보천교를 매개로 한 집합적 성향을 갖게 하였다. 예컨대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간에 앞의 풍설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의식하면서 일종의 동체 의식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37]

村山智順은 "유사종교는 오히려 민중의 생활 요구에 의해서 발생하고 민중의 종교 의식에 의해서 성장하며, 민중의 생활 사상에 이끌려 활동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유사종교가 민중을 희롱한 게 아니며, 유사종교의 활동이 오히려 민중의 생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하였다.[38] 즉 신종교는 어디까지나 민중의 생활에서 나온 요구나 관념, 사상 등에 의해서 규정되어 만들어지고 활동했던 실체라는 것이다. 앞의 村山智順의 시각을 인용한 조경달도 앞의 그의 글에서 당시의 신종교 문제가 교주의 사상이나 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희구하는 교인들, 즉 민중의 문제였다고 언급하였다.[39]

조선 후기부터 끊이지 않고 부각돼 온 '정감록 신앙'은 근대화의 물결이 사람들을 엄습하는 식민지시기에 더욱 더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다.[40] 민중의 새 왕조 개창이라는 염원은 보천교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힘입은 채 예언이나 풍설로 재생산되었다. 일제는 앞의 '풍설'과 풍설에 따른 왜곡된 민족의식으로 두드러진 민중의 집합적 성향을 직시하면서, 1918년 제주에서처럼 민중의 반란 가능성에 더욱 긴장하였던 것이다.

36) <風說이 전하는 태을교-去病解冤의 信條>, ≪동아일보≫ 1922.2.23; <흠치교도와 대충돌>, ≪동아일보≫ 1922.8.19.

37) 망탈리테(mentalite)라는 '집합적 성향' 또는 '집합적 심성'은 사고를 획일적으로 이끌어 가는 새롭고도 독특한 행동 방식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면서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대체로 동일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이다. 대체로 자생적으로 발생·발전하면서 무엇에 감염되는 듯이 확산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38) 村山智順, 앞의 책, pp.951-955.

39) 당시 교인과 민중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긴 하다.

40) 趙景達, 앞의 책, p.290.

3. 보천교의 '자금'과 민족운동

대체로 3·1운동 전후해서 일제가 가졌던 보천교에 대한 혐의는 '보천교가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 독립 사상을 고취하며 새 정부를 수립하려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민중 사이에서 떠도는 풍설과 다르지 않았다. 1921년에 들어서서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일제의 긴장감을 배가시켰다. 하나는 두 번째 고천제를 앞두고 구체적으로 퍼져나가는 '천자 등극설'이었고, 또 하나는 보천교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돼 나타난 의심스런 '자금'이었다.

3.1. 보천교와 민족운동

보천교가 한국의 독립을 기도하고 교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유용했다, 라는 게 1921년경의 일제의 보천교 탄압 명분이었다.[41] 이 전에도 보천교가 한국의 독립을 기도한다, 라는 혐의를 갖긴 했지만, 교금을 독립운동 자금과 연계시킨 것은 1921년경이 처음 아닌가 한다. 일제의 이러한 의구심은 근래에 일부 사실로 판명되기도 하였다.

김철수(金綴洙)는 그의 「친필 유고」에서 "모스크바의 약소민족회의에 김규식(金奎植), 여운형(呂運亨), 김철(金澈), 김상덕(金尙德), 라용균(羅容均), 정광호(鄭光鎬), 장덕진(張德震) 등을 파견하기로 하고, 여비 마련은 최팔용(崔八鏞), 장덕수(張德秀) 두 사람이 차경석을 방문해 돈 만엔(萬円)을 받아, 이것을 내가 맡아 가지고 7인에게 지급(支給)했다"[42] 라고 밝혔다. 이때가 1921년이다. 김철수의 다른 증언에도 보천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43] 3·1운동을 준비하는 등 3·1운동에 깊

41) <십만원의 독립 자금>, ≪동아일보≫ 1921.10.29.

42) 김철수, 「김철수 친필유고」, 이균영 편, 『역사비평』 5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1989), p.354.

43) 생전의 金綴洙는 김효명에게 1920년대 사회 운동 전반을 증언하였다. 그 가운데 "차월곡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과 관련한 내용이 몇 건 있다"고 김효명은 증언하였다(1990년 2월 11일, 미륵산종덕훈련원에서). 김철수가 했다는 증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

이 관여한 임규(林圭)가 보천교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단지, 임규가 보천교로부터 받은 5만 원은 라용균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하려는 독립운동 자금이라는 것뿐이다.[44] 앞의 일련의 내용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당시의 임규는 진정원(眞正院) 형평사장(衡平司長)이라는 보천교 간부였다.[45] 더불어 조선물산장려회 보천교 측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46] 임규의 이러한 이력은 앞의 자금과 관련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여겨진다.

보천교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연계를 추정할 수 있는 문건이 최근에 발굴되었다. 문건들은 주로 종로경찰서나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정보 보고서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열렸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보천교 대표는 강일(姜逸)과 배치문(裵致文) 등 두 명이었다.[47] 국민대표회의에 보천교 간부가 참석한 연유는 분명치 않으나 다음 사례를 통해서 그 연유를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규가 받은 보천교의 5만 원이 대한민국

해봐야 하겠지만, 위 본문의 '김철수의 증언' 내용과 중복됐을 수 있다.

44) 崔公燁, 「林圭, 3·1運動 民族代表 48인중의 한 분」, 『全北人物誌』 (전주: 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 1984), p.294. 앞의 崔公燁은 전북일보사 편집국장을 지낸 이로, 임규의 증언을 바탕으로 앞의 글을 썼다고 한다. '임규가 보천교로부터 5만 원을 받아서 라용균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임규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이강오(전 전북대 철학과)의 구술과 일치한다[안후상,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 『민족운동사연구』 19 (서울: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 pp.367-368]. 임규와 이강오의 고향은 익산 금마로, 동향이다.

45) 「癸亥一年敎史의 槪要」, 『普光』 4 (京城: 普光社, 1924.3), p.89.

46) 참고로, 趙景達은 "임규가 보천교인이라는 안후상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했지만(趙景達, 앞의 책, p.139), 임규는 1920년대 초반에 이정립의 연비로 보천교인이 되었던 인물이다. 1990년대에 생존했던 교인들은 하나같이 '임규는 보천교인'이라고 말했다. 김정인도 「1920년대 전반기 普天敎의 浮沈과 民族運動」[『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2002), p.166]에서 '임규는 이정립의 연비로 입교했던 보천교인'이라 언급하였다.

47) 「大正十二年 高警第二六九三號 上海情報」 (發送 朝鮮總督府警務局, 1923.8), pp.1-3. 앞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보천교 대표는 경남 합천의 姜逸(본명이 姜弘烈)과 목포의 裵致文이다. 강일과 배치문의 보천교 내에서의 위치나 역할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대표회의에 보천교 대표가 포함된 배경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보천교의 자금 1만 원을 직접 관리했다는 김철수의 행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철수는 국민대표회의 중에 '비서'로 당선되기도 하였다(<上海國民會議의 議事內容, 일월 초순경부터 상해에 열린 국민대표회의, 백여의 대표가 연일 의론한 의사의 대강 내용>, ≪동아일보≫ 1923.3.8.).

임시정부에 실제로 전달됐을 가능성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할 몫으로 보천교인 2명을 할애했을 수도 있다. 또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타계하기 위해서 자금력을 갖춘 보천교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끌어들이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대표회의에 파견된 보천교 간부 두 사람은 모두 의열단(義烈團)과 관련이 있다.[48] 이로 보아, 의열단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천교의 자금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다른, 김좌진(金佐鎭)도 보천교의 자금을 원했던 듯하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김좌진에게 보천교가 2만여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제의 정보 보고서도 있다.[49] 이러한 사례는 적어도 공개 이전의 보천교의 활동상과 맞물려 있다.

어쨌든 김철수나 임규의 두 사례로 미루어, 당시의 보천교는 민족운동 세력에게 적어도 6만 원의 거금을 지원하였다. 이로 보아, 교금을 수합하여 독립운동 단체나 또는 관련 인물에게 전달하는 것도 보천교 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의 방법은 운동의 취지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보천교 운동의 취지나 목적은 강증산의 가르침과 『정감록』의 영향으로 형성된 '지상선경 사회 건설론'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임규나 김철수와 관련한 보천교의 자금 지원 건은 몰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열단이나 김좌진과 관련한 보천교의 움직임은 일제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이때가 1921년경이다. 1921년경의 일제는 교금을 매개로 하는 국내외의 민족운동 세력과 보천교 간의 연계를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의 주시한 가운데, 어쩌면 일제가 조작한 사건일지도 모를, '자금'과 관련한 두 사건이 발생하였다.

48) 「大正十二年 義烈團員吳福泳等ノ行動ニ關スル件」 (發送 京城○○○察署長, 1923.9.18), p.1. 앞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대표회의 대표인 姜逸과 裵致文은 모두 의열단과 관련이 있다.

49) 「關機高援 第三二七四三號 大正十二年 臨時保第四四十號」 (關東廳警務局, 1924.11.26), p.1. 앞의 자료와 「공훈록」(兪民植)에 의하면, 보천교도 申贊雨는 김좌진의 밀명을 받고서 1922년 양력 3월경에 차월곡을 만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2. '청송 사건'과 '김홍규 사건'

1921년 3월에 일제는 강원도 금화(金化)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자금을 수합한다는 죄목으로 보천교인 8명을 구속하였다. 같은 해 5월 경기도 이천에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이는 보천교의 자금이 발각되었다. 여기에서 자금은 '치성금'이라고도 부르는 '교금'이다. 보천교의 자금과 관련해서 일제는 강원도와 삼남 각지의 교인 수 천 명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보천교 본소가 있는 전북의 정읍(井邑)은 물론이고 경북의 문경(聞慶), 강원의 양양(襄陽), 경남 일대와 함남의 원산(元山), 영흥(永興), 정평(定平), 안변(安邊) 등과 이천(利川), 황주(黃州) 등지에서 다수의 교인이 검거되었으니, 일종의 검거 선풍이다.[50]

사실은 1916년부터 차월곡은 교금의 출처와 용처를 숨기기 위해서 교금에 숫자로 된 암호를 부기할 정도로, 교금을 철저히 관리해왔다.[51] 교금에 암호까지 부여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일제가 교금을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1921년경부터 일제는 노골적으로 보천교의 자금을 독립운동과 결부시켰고, 교인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검거 선풍과 관련하여 1921년경의 신문 기사는 대체로 "보천교가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독립 적립금을 모았고, 더불어 독

50) <독립운동 하는 태을교 신자, 오는 21일에 이심 판결>, ≪조선일보≫ 1921.2.19.; <선도교 대검거. 경상남도 중심으로 한 비밀결사, 닥치는 대로 체포>, ≪조선일보≫ 1921.4.12.; <흠치교의 일부인 허무맹랑한 선도교. 흠치교에서 분리한 선도교, 대정 13년 3월 5일에 교주가 왕이 된다고 유혹. 교도 100여명 일망타진>, ≪조선일보≫ 1921.4.26.; <선도를 표방하는 비밀단체 대검거>, ≪동아일보≫ 1921.4.26.; <국권회복을 요망하는 태을교도 검거, 강원도 이천에서 사십 명 검거>, ≪동아일보≫ 1921.5.13.; <兼二浦 경찰서에 검거된 태을교도의 자백. 교도가 55만 7천 명만 되면 조선은 독립. 교주는 왕, 13일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조선일보≫ 1921.5.19.; <회복단원 又 체포, 종로서의 태을교도 검거, 재작일에도 세 명을 체포>, ≪동아일보≫ 1921.5.24.; <기도만 하면 상제까지 顯影, 태을교도 두 명 안악에서 잡혀>, ≪동아일보≫ 1921.5.29.; <태을교의 독립운동, 징역 이년 불복, 박희백은 공소>, ≪동아일보≫ 1921.8.6.; <태을교를 표방하고 독립운동을 맹세한 단체 공소>, ≪동아일보≫ 1921.8.25.; <갑자년을 기약하고 독립운동, 태을교도 공소>, ≪동아일보≫ 1921.10.7.; <십만 원의 독립자금>, ≪동아일보≫ 1921.10.29.; <태을교도 검거, 여주서의 손에>, ≪동아일보≫ 1921.12.19.

51) 南山太郎, 「秘密結社の解剖(四)」, 『朝鮮公論』 10:10 (通卷 第115號, 1922.10), p.81. 앞의 글에는 차월곡이 치성금 출납의 비밀을 위해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 10000' 등과 같은 숫자로 된 암호를 부여하였고, 숫자 8 이상 된 자만이 교금을 활용토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앞의 南山太郎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나 종무과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추정된다(자료는 立命館大 송형목 제공).

립이 된 후에 교주가 황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보천교인은 모두가 고관대작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다.[52]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의 일제가 품었던 혐의이기도 하였다. 1921년 이전의 일제가 품었던 혐의와의 차이라면 바로 자금의 출처와 용처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보천교의 자금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은 일명 '청송 사건'과 '김홍규의 독립자금 사건'(이하 '김홍규 사건'이라 함)이다. 이성영의 『증산교사』[53]에는 "1920년 겨울, 일제는 制令 제7호 위반 혐의로 경상북도의 안동(安東), 의성(義城), 청송(靑松), 영양(英陽), 영덕(盈德), 봉화(奉化), 영주(榮洲), 예천(醴泉), 군위(軍威) 등의 보천교도 3천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때 경찰에 의해 고문치사 당한 자가 수십 명에 달했고, 7백여 명을 기소함에 미(未)체포로 망명하여 다니는 자가 3만여 명에 이른다"고 적시돼 있다. 더불어 "129명이 고등법원에까지 상고하였으나 결국은 최고 2년 6개월, 최하 9개월간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실체가 부풀려지긴 했지만, 1921년 한 해 동안 구속, 기소된 보천교도는 수백 명에 이른다.[54] 「대정십년(大正十年) (대구복심법원판결문(大邱覆審法院判決文)」(1921년)에 나타난 일명 '청송 사건'의 기소자만도 95명이다. 이들에 대한 일제의 혐의는 대체로 "1924년(갑자년)에 한국이 독립되면 차월곡이 천자로 등극하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 자금을 수합했다"라는 내용이다.[55] 이것으로 보아, 일제는 보천교 자금의 출처 뿐 아니라 용처에도 예의 주시한

52) <開眼法과 貫通法으로ㅡ普天敎徒의 檢擧, 오는 칠월에는 옥황상제가 강림하여 괴질로써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교도로서 신정부를 조직한다고ㅡ>, ≪조선일보≫ 1921.6.6.

53) 李正立, 앞의 책, pp.88-90. 참고로 李正立의 보천교 간부 시절의 이름은 李成英이다. 이성영은 李祥昊·李順鐸과도 형제지간이다. 형인 이상호와 함께 보천교의 계몽화를 주도했던 이성영은 일본 교토에서 유학한 엘리트이다. 시대일보사 인수로 불거진 분란의 책임을 묻는 보수파와의 갈등 관계를 유지하다가 형 이상호와 함께 보천교를 탈교하면서는 '甑山敎'를 있게 하였다. 증산교의 지도자로서 증산교의 핵심 경전 『大巡典經』을 펴냈으며, 1970년대에는 증산교단사인 『甑山敎史』를 출간하였다.

54) <태을교도 대검거, 안동에서 삼백 명 이상을>, ≪동아일보≫ 1921.4.7.; <흠치교도의 대공판, 작일 오전 대구복심법원에서, 첫날은 피고 일부의 사실 심문>, ≪동아일보≫ 1921.10.7. 앞의 ≪동아일보≫(1921.10.7.) 기사 "흠치교도 李君明 외 일백오십 명에 대한 공소공판…"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대구복심법원에서 공판을 받는 흠치교도들은 앞의 안동에서 구속, 기소된 자들이 분명하다.

55) '甲子登極說'은 甲子年(1924년) 甲子月 甲子日에 차월곡이 '天子'로 등극한다는 풍설을 말한다.

것 같다. '청송 사건'은 같은 해의 '김홍규 사건'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보천교의 자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김홍규 사건'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이를 자세히 소개하겠다.

최근에 김재영은 그의 글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56]에서 『동아일보』[57] 기사를 인용하면서, 김홍규의 11여만 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려던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필자도 김재영과 같은 인식을 했었다. 그러나 김홍규의 11여만 원은 국외 독립운동 단체와는 무관하다. 그간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교단 측 자료를 배제한 채 연구가 진행된 데 따른 잘못된 판단이다.[58]

김홍규의 11여만 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려는 군자금일 수 있다고 보도한 앞의 신문기사는 '김홍규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59] 아니면, 일제에 의해서 '김홍규 사건'이 의도적으로 왜곡, 날조되었을 가능성이다. 당시의 신문은 대체로 "1921년 겨울에 경찰은 보천교의 자금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였다. 이때 김홍규(金洪奎; 신문의 김규당은 김홍규의 가명임)의 집 마루 밑에서 지화 및 은화 10만 7천 7백 50원이 들어 있는 항아리 한 개를 발견하였다. 돈의 성격은 교금인데도 불고하고 김홍규 외 이용하(李容河), 김혁중(金赫中), 최두홍(崔斗洪), 강태규(康泰圭), 목원익(睦源益) 등 주요 간부 수십 명을 체포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원도와 삼남의 교도 수백 명을 검거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다.[60] 김홍규는 교단의 5인방

56) 김재영,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 31 (2007).

57) <태을교 두목 검거>, ≪동아일보≫ 1921.4.30.

58) 참고로 대표적인 교단사 『普天教沿革史(上·下)』는 1935년에 작성됐지만 내외의 사정상 1948년에 발간하였다고 한다. 1935년에 경찰의 탄압을 의식해 교단의 항일 관련 내용이 전격 삭제되었고, 각 세력 간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발간이 지연되다가 광복 직후에 발간되었다는 것이다[閔泳國 編, 『道訓』 (井邑: 普天教總正院典文司, 1987), p.339. 이 외 다수 교인과 차월곡의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다. 앞의 『普天教沿革史(上·下)』에는 친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과되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는가 하면, 일명 '김홍규 사건' 관련 기소 내용 및 형량 등이 당시의 재판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59) <태을교 두목 검거>, ≪동아일보≫ 1921.4.30.

60) 「大正十一年 公州地方法院 豫審判決文」(1922); <태을교도 두목 검거>, ≪동아일보≫ 1921.4.30.; <십만 원의 독립자금. 태을교 간부의 비밀회의 발각, 간부 오 명 체포 후 계속 검거 중>, ≪동아일보≫ 1921.10.29.; <怪教 太乙-甲子年 4월을 기하여 鷄龍山에 車皇帝->, ≪동아일보≫ 1922.2.21.; <獨立黨의 단체로 관헌의 엄중, 종적 잃은 차경석>, ≪동아일보≫ 1922.2.24.

가운데 하나인 목방주(木方主)이자 교금 담당자였다. '김홍규 사건'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의 기관지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을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파급을 불러일으켰다.[61]

김홍규의 11여만 원과 관련한 '예심 판결문' 역시 앞의 신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태을교라는 유사종교 단체에 가입한 김홍규 이하 간부들이 태을교의 많은 교도들과 서로 결속하여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음모단을 조직하여, 교도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 교도에게 정부 요로에 나가게 해 고관대작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치성금을 걷어, 조선의 독립 준비를 공고히 하였다"라는 게 그 주된 내용이었다.[62]

3.3. 김영두의 교금 탈취와 '김홍규 사건'

이처럼 신문과 '예심 판결문'에는 김홍규의 11여만 원을 단지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았을 뿐, 국내외의 그 어떤 민족운동 세력과 연계돼 있는 자금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교단사에는 '김홍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한 마디로 '김홍규 사건'은 방주 김영두(金英斗)의 배신에서 시작되었다.[63]

1921년 2월 10일(음)에 방주 김홍규와 채선묵(蔡善默) 등이 임직 부임차 평양에 갔다가 전격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64] 체포된 배경에는 수상한 자금과 관련이 있었다. 채선묵은 기소되었고 김홍규는 40여일 만에 풀려났다. 김홍규의 체포를 교권 장악의 기회라 여긴 또 다른 방주 김영두는 김홍규가 수합한 교금 11만 3천 7백 30원(이하 11여만 원이라 함)을 문서를 위조해 탈취하였다. 김영두는 그의 부친의 집(전라북도 정

61) <被逮事件>, ≪독립신문≫ 1921.5.4.; <被捉事件一束>, ≪독립신문≫ 1921.11.11.; <太乙教와 독립준비>, ≪신한민보≫ 1923.5.3.

62) 「大正十一年 公州地方法院 豫審判決文」(1922).

63) 李英浩, 앞의 책, pp.15-30.

64) <태을교 두목 검거>, ≪동아일보≫ 1921.4.30. 앞의 기사에는 김홍규를 '김규당'으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교단의 간부들 다수는 일제의 탄압에 대비해 異名을 썼다고 한다.

읍의 월성리)에 4만 3천 7백 30원(이하 4만여 원이라 함)을 은익하고, 나머지로는 자신과 거사를 함께 할 방주들을 매수하는데 써버렸다.[65]

김영두가 교금 11여만 원을 탈취할 당시의 차월곡은 경상남도 함양에 은신해 있으면서 고천제(告天祭)를 준비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 번째 고천제는 보천교로서는 중요한 행사였다. 일제도 차월곡이 국호를 선포하고 천자에 등극하려는 행사가 고천제라는 일명 '천자등극설'의 확산에 긴장하고 있었다. 긴장한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차월곡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였으나, 차월곡은 교인들로 하여금 경찰의 동행을 정탐토록 하는 등, 고천제 개최에 집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두의 교금 탈취 사건이 함양이 아닌 정읍에서 일어난 것이다.[66]

교금 탈취 사실을 함양의 차월곡이 알게 되면서 김영두 일파는 교조직에서 이탈함과 동시에 차월곡의 은신 장소를 밀고해버렸다. 경찰은 차월곡을 적극 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영두의 교금 탈취 사실까지 포착하게 되었다. 또는 김홍규를 구속해 놓고 김영두로 하여금 교금을 탈취하도록 경찰이 획책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김홍규의 11여만 원을 포착한 직후에 경기도 경찰부는 촉탁 박경환(朴敬煥)을 정읍에 급파하였다. 박경환은 김영두의 부친 집에서 김영두가 숨겨놓은 교금 4만여 원을 찾아냈다. 이때가 1921년 7월 5일경(음) 이후이다. 1921년 7월 중순경에는 포섭한 간부 신현철(申鉉喆), 장궁만(張弓挽) 등과 함께 김영두는 '고천제는 천자 등극식'이라고 경찰에 재차 밀고하였고, 밀고 직후에 서울의 포교책임자이자 임시정리장(臨時正理長)인 이상호가 전격 체포되었다. 이어서 김영두 일파는 서울에다가 공공연하게 <태을교본부(太乙敎本部)>라는 간판을 내걸었던 것이다.[67] <태을교본부>는 당시에 형식상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인 받는 보천교 교단이 된 것이다.

신문에서 보도한 '김홍규 사건'은 김영두가 탈취한 11여만 원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였다. 일제는 야심가 김영두의 보천교 주도권 장악을 형

65) 李英浩, 앞의 책, pp.15-30.
66) 李英浩, 같은 책.
67) 李英浩, 같은 책.

식상 묵인한 대가로 김영두로부터 교단의 기밀 사항 및 교금 4만여 원을 넘겨받았을 것이다. 더불어 나머지 7만여 원을 김영두로 하여금 활용토록 묵인하면서 교조직의 분열을 획책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김홍규가 가지고 있던 교금 11여만 원의 정체가 궁금하다. 김홍규의 11여만 원의 정체는 다음과 같이 추측할 뿐이었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대로 김홍규의 11여만 원은 국내외 민족운동가들에게 전달하려던 자금일 가능성이다.[68] 경찰은 이 점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사를 확대했으나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둘째, 김홍규의 11여만 원은 순수한 교금(일명 치성금)일 가능성이다. 필자는 김홍규의 11여만 원을 교금인 치성금으로 보고 있다. 1918년 법정사 항일항쟁 당시에 문인택이 가지고 나온 10만원과도 같은 성격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다. 거액의 교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또는 교조직의 분열을 목적으로 한 일제가 김홍규의 11여만 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려는 독립운동 자금이라고 날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두의 교금 탈취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김홍규의 11여만 원이 순수한 교금이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일제는 다음 두 가지 정도를 염려하였다. 하나는 거금을 수합할 수 있는 보천교가 비밀결사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천교의 자금이 국내외 민족운동 단체나 관련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염려했던 것 같다. 보천교와 국내외 민족운동 단체와의 연계를 일부 포착한 상황에서 일제는 비밀스러운 보천교가 거액의 교금을 수합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68) 김홍규의 후손들은 김홍규의 11만여 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려던 군자금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에 국가보훈처는 '김홍규 사건'이 해외 독립운동과 연관돼 있다며 김홍규에게 건국 포장을 추서하였다.

4. 일제의 회유와 '보천교 공개'

'청송 사건'과 '김홍규 사건'은 보천교로서는 분명 치명타였다. 중앙과 지방의 간부는 물론이고 일반 교도들 다수가 검거되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비밀결사적 조직운동과 각종 풍설에서 비롯된 의혹들은 보천교에 대한 일제의 산발적인 탄압을 낳았었다. 그러나 교금의 출처 및 용처의 문제가 더해지면서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보천교는 중앙과 지방 조직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타격 입은 보천교는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일제와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앞에 서 있었다. 과연 보천교의 선택은 무엇일까.

4.1. 일제의 보천교 '회유'

물리적인 탄압만으로는 보천교 운동을 소멸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탄압을 보도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는 터무니없어 보였고, 자칫 경찰의 수사 내용도 희화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때에 일제의 '종교 선도주의(宗敎 善導主義)'가 등장하였다.[69] 종교 선도주의란 한국의 비밀스러운 신종교를 표면에 드러나게 하여 통제를 가한다는 일종의 '회유책'이다.[70]

'청송 사건'과 '김홍규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고천제가 경남 함양의 운곡리(雲谷里)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일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고천제를 무산시킴과 동시에 보천교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는 회유 공작을 펼쳤다.[71] 일제의 보천교 회유 과정을 교단사를 참고하여

69) 조경달, 『민중과 유토피아』, 허영란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2009), pp.261-262.

70) 윤이흠 외, 『日帝의 韓國 民族宗敎 抹殺策－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p.88; 윤선자, 앞의 책, pp.75-85. 윤이흠은 앞의 책에서 일제의 회유 목적을 교조직의 분열과 사교화로 보았다.

71) <자칭 大時國皇帝－태을교주 차경석이 국호와 관제를 발표－>, ≪동아일보≫ 1922.10.26.; 李英浩, 앞의 책, pp.19-26.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두의 밀고로 드러난 '김홍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경찰부 경시(警視) 김태식(金泰湜)이라는 자는 차월곡의 체포를 주도하였다.[72] 이때가 1921년 7월 5일(음) 이후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김태식은 자신이 조직한 동광회(東光會)의 김교훈(金敎燻)과 노병희(盧柄熙) 등을 통해서 차월곡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김교훈과 노병희 일행은 어렵게 차월곡을 만날 수 있었고, 만나는 자리에서 교조직을 세상에 공개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차월곡은 방주회의에서 의론할 문제라고만 답변하였다. 이것이 화근이었던가. 그로부터 한 달 만인 1921년 8월 14일(음)에 김홍규, 이상호 등 핵심 간부 20여 명이 전격 체포되었다. 김홍규로서는 두 번째 당하는 체포였다. 교단의 공개에 미온적이던 차월곡에 대한 일제의 압박은 핵심 간부의 체포로 이어졌던 것이다.[73]

일제는 체포된 서울의 포교 책임자 이상호에게도 교단의 공개를 거듭 권고하였다.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장 藤本源市는 구류 상태인 이상호를 정중히 예우하면서 종교를 숨어서 하는 까닭을 물었다. 이에 "도처에서 교도들을 조사하여 주야로 수색과 압박이 심하니 부득이하게 숨어서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藤本源市는 "종교는 동서를 물론하고 누가 감히 사랑하지 아니 하리오"라며 보천교의 공개를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이상호는 교단의 공개는 차월곡 이하 방주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피력하였다.[74]

석방된 이상호는 도피 중인 차월곡과 방주들을 만나,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에서 요구한 교단의 공개 문제를 개진하였다. 교단의 공개 문제로 방주회의는 4일 동안이나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차월곡 이하 방주들은 교단의 공개에 관한 전권을 이상호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이다.[75] 한편, 1921년 9월 초순경에 정읍경찰서 및 광주 지역의 경찰과 밀정들이 고천

72) 김태식이라는 이름은 조선총독부 인명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교단사의 기록이 부정확했거나 또는 김태식의 본명이 달리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73) 李英浩, 앞의 책, pp.15-30.

74) 李英浩, 앞의 책, pp.27-28.

75) 李正立, 앞의 책, pp.89-90.

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함양으로 들어와, 산간의 각 마을을 수색하였다. 함양의 운곡리(雲谷里)에서 개최하기로 한 고천제는 경찰과 밀정들의 수색으로 장소를 산악 지대인 황석산(黃石山)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76]

藤本源市도 경기도 경찰부 소속의 박경환과 정기홍 등을 함양으로 내려 보냈다. 이때가 고천제를 하루 앞둔 1921년 9월 23일(음)이다. 박경환은 '김홍규 사건' 당시에 정읍과 함양 등지에서 활동하던 이었다. 같은 시기에 경기도 경찰부의 김태식도 동광회의 김교훈과 노병희 그리고 이기만(李基晩) 등을 함양으로 내려 보냈다. 경기도 경찰부 소속 박경환과 동광회의 김교훈은 각각 차월곡을 만나 교단의 공개를 재차 권유하였다. 특히 박경환은 교단을 공개하면 김영두의 부친 집에서 압수한 교금 4만여 원을 돌려주겠노라고, 까지 제안하였다. 이처럼 각 방면에서 경쟁하듯이 보천교의 공개를 압박해왔다. 뒤의 일이지만, 1923년 2월에 일제는 앞의 교금 4만여 원을 조선총독부에 편입시켜버렸다고 한다.[77]

일제의 끈질긴 탄압과 회유는 차월곡을 진퇴양난에 빠뜨렸다. 교단의 공개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압은 물론이고 고천제의 개최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교단의 공개와 비밀스런 교조직의 유지를 두고서 적잖이 고심하였던 차월곡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4.2. 고천제와 '보천교 공개'

일제의 강경한 탄압과 끈질긴 회유, 그리고 서울을 기반으로 2인자 자리를 구축해 가던 신진 지식인 이상호의 건의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기존의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의 상징적 이벤트인 고천제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보천교가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이유도 알고 보면 고천제를 계기로 부각된 각종 풍설들이었기에, 차월곡의 갈등은 커져만 갔다. 결국 차월곡은 교조직의 공개와 고천제 모두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조직의 공개라는 선택에는 고천제의 개최가 담보

76) 李英浩, 앞의 책, pp.15-30. '皇石山'으로도 표기한다.
77) 李英浩, 같은 책.

돼 있음을 어렵잖게 짐작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경찰의 삼엄한 포위망에도 불고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간부들을 대동하고서 고천제를 성공리에 마쳤기 때문이다.[78]

'고천제'와 고천제 이후의 '교단 공개'를 교단사를 통해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921년 9월 24일(음) 신시(申時;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함양의 황석산 정상부에는 9층의 단(壇; 단의 높이는 7척 2촌, 최상층의 넓이는 사방 9척, 최하층의 넓이는 사방 15척)이 마련되었다. 단 한 가운데의 '구천하감지위 옥황상제하감지위 삼태칠성응감지위(九天下鑑之位 玉皇上帝下鑑之位 三台七星應鑑之位)'라는 위목(位目; 신앙 대상의 이름을 쓴 종이) 앞에는 60방주와 360군의 포장(布長) 등 수백 명의 간부들이 누군가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자욱한 안개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는데, 갑작스레 안개가 걷히면서 3층의 단 위에 수려한 의관의 차월곡이 드러났다. 교주의 지위를 마지못해 수락하는 형식을 취한 차월곡은 굵직한 음성으로 차분하게 교명을 '보화(普化)'라 천명하였다.[79] 더불어 축문을 읽어 내려갔다. 교단사에는 축문을 읽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축문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국호를 선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축문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풍설만 전해지고 있다.[80] 이로써 보천교는 형식상 교주가 존재하는 명실상부한 종교가 되었다.[81]

아이러니하게도 고천제에서는 '보화교'라는 교명을 천명했으면서도 5개월 뒤인 1922년 2월(음)에 서울에서 공개한 교명은 '보천교'였다. 교단 이름이 두 개가 된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홍범초는 그의 저서 『범증산교사』에서 "차월곡이 경성의 포교 책임자 이상호에게 교명을 보화교로 할 것을 명하였지만 이상호는 보화교로는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보화교의 '보(普)'자와 당시 공인된 천도교나 천주교의 '천(天)'자를 따서 보천교로 하였다"고 피력하였다.[82] 홍범초는 이상호,

78) 李英浩, 같은 책.
79) 李英浩, 같은 책.
80) <자칭 大時國皇帝-태을교주 차경석이 국호와 관제를 발표>, ≪동아일보≫ 1922.10.26.
81) 고천제 이전에는 차월곡을 '선생'이나 '주인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성영 등의 뒤를 잇는 증산교계 교단의 지도자였다.

어쨌든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개의 교명이 나왔다는 것은 일제의 기만책에 대한 보천교의 대응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83] 일제의 집요한 탄압과 회유로부터 교단을 보호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한 고천제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 '보천교 공개'였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공개는 보천교 내부에서 그 지위를 높여가던 신진 지식인들의 바람이기도 하였다.[84] 특히 서울의 포교 책임자 이상호와 그의 아우 이성영은 당시의 신진 지식인 다수를 영입하였다. 그 가운데는 임규(林圭), 고용환(高龍煥), 주익(朱翼), 이종익(李種翊) 등은 민족주의 우파로 분류되는 이른바 계몽주의자들이었다. 이들 신진 지식인 그룹은 교조직의 공개를 계기로 보천교를 근대적 종교운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차월곡과 보천교의 핵심 간부들은 기존의 교 질서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교조직 내에서 보수와 혁신이라는 구도를 만들었고, 이러한 구도 아래에서 두 개의 교명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교단의 공개에 관한 전권을 일임 받았다는 이상호는 1922년 2월 1일(음)에 동대문 밖 창신동에 수십 간 짜리의 집을 구해 교조직의 서울 사무소로 삼으면서, 그 명칭을 <보천교진정원(普天敎眞正院)>이라 하였다. 비밀스런 보천교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보천교의 종지(宗旨)와 교리 등이 만들어졌다.[85] 인쇄소를 설립해 잡지를 발간하고 일간지 <시대일보사>를 인수하는 등, 당시 천도교의 사회 활동을 답습하였다. 서울과는 달리 정읍의 본소에서는 삼광영(三光影; 신앙 대상인 하늘과 태양과 별)을 안치할 신성전(神聖殿)이 건축되고 있었다.[86] 1922년 8월경(음)에는 한옥으로 된 각 방주 공실(公室) 50여 동이 신축되었으며, 1922년 9월(음)에는 교인 1인에 숟가락 1개씩을 수합토록 하여 교종(敎鐘)을 주조하기도 하였다.[87]

82) 홍범초, 『汎甑山敎史』 (서울: 도서출판 한누리, 1988), p.90.
83) 보천교 해체 이후에 일부 교인들은 정읍에서 '普化敎'를 창시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84)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普天敎의 浮沈과 民族運動」,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서울: 국학자료원, 2002), p.165.
85) 李正立, 앞의 책, p.90.
86) 李英浩, 앞의 책, p.31.

이처럼 고천제의 개최와 교조직의 공개를 계기로 보천교는 이중적인 운영체제를 갖게 되었다. 서울의 이상호를 정점으로 하는 교단 내 신진 지식인들은 보천교를 근대적 종교로의 개편을 시도함과 아울러, 사회 현실 문제에 개입하고자 하였다.[88] 반면에 정읍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 내 보수 세력은 성전을 건축하는 등, 기존의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을 고수하였다. 보천교의 보수와 혁신 세력 간의 갈등의 조짐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 고천제에서 국호를 '대시국(大時國)'이라 하고 관제를 반포하면서 교주 차월곡이 천자로 등극했다는 것이다.[89] 일명 '천자등극설'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민중 사이에 떠도는 풍설이지만, 일제의 통치 관련 문서에도 "교주는 구한국 황제의 의관속대(衣冠束帶)를 하고 당일 천자(天子)가 된다는데, 금일부터 나를 천자라고 부르고 국명(國名)을 시(時)로 교명(敎命)을 보화(普化)라고 고침이라"[90]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도 고천제를 천자등극식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벽주의에 가까운 보천교의 발상보다는 보천교의 고천제라는 행사를 계기로 민중이 크게 결집할 가능성에 더 긴장했던 것 같다. 대체로 3·1운동을 기점으로 민족운동에서의 복벽주의는 사라졌다.[91]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념과 신비적인 종교 관념이 미분화된 상태의 농민층은 보수 지향적 전통주의나 복고적인 규범의식 등을 벗지 못하였던 것 같다.[92] 조선총독부를 위시한 교단 밖의 신진 지식인들의 의식에서도 천자등극설에 대한 기대나 우려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민중은 천자등극설과 같은 복벽주의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다. 어쩌면 민중 사이에 천자등극설과 같은 복벽주의적 사고가 잔존했던 것이 보천교의 성행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보천교의 공개는 대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양상을 낳았는데, 그 첫 번

87) 閔泳國 編, 『道訓』, pp.28-29.
88) 공개 이후의 보천교는 월간지 『普光』을 창간하고 『時代日報』를 인수하였다. 이어서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
89) <자칭 大時國皇帝ㅡ태을교주 차경석이 국호와 관제를 발표>, ≪동아일보≫ 1922.10.26.
90) 『普天敎一般』, pp.151-152.
91) 강만길,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4), pp.46-47.
92) 황선명, 「잃어버린 코뮌」, 『신종교연구』 2 (2000), pp.40-48.

째가 보천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일제와 언론, 그리고 교단 밖의 신진 지식인들에게 보천교는 '유사종교 또는 사이비종교' 그 자체였다. 특히 신문과 잡지는 이 전과는 달리 일관되게 보천교를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렸다.[93] 반면에 적지 않은 민중은 공개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천교야말로 새 정부를 주도할 정도령으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는, 회유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일제는 보천교의 분열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노골적인 강경 일변도의 탄압도 늦추지도 않았다.[94] 급기야 보천교는 보수와 혁신으로 갈라서게 되었고, 이러한 분란은 또 다른 분란으로 이어지면서 보천교는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보수와 혁신 세력 간의 다툼이 본격화된 것은 『시대일보』 인수로 인한 분란이었지만, 그 분란의 배경에는 '보천교 공개'가 있었던 것이다.[95]

5. 맺는말

문화 통치기에도 보천교는 여전히 일제의 물리적 탄압의 대상이었다. 반(半)공인된 천도교와는 달리 보천교는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보천교의 고천제를 즈음하여 '고천제는 천자 등극식'이라는 풍설이 떠돌았다. 당시 민중의 새 왕조 개창이라는 염원은 보천교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힘입은 채 예언이나 풍설로 재생산되고 있었다. 이렇듯 풍설은 민중을 집합적 성향으로 만들었고 일제는 민중의 이러한 성향을 예의 주시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민중과 식민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앞의 '풍설'은 어떤 의미일까.

93) '보천교 공개' 이후의 언론은 대체로 보천교를 '상투쟁이'라는 단어로 상징화하고, 보천교인 활동을 '미신의 감투를 쓰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비하하였다. 보천교를 '미신의 상징'으로까지 그린 만평도 등장하였다.

94) 교단 공개 직후인 1922년 3월에 함양경찰서는 차월곡을 추적하였다. 같은 해 11월(음력)에는 朝鮮總督府 通譯官 西村眞太郎이 전라북도 경찰부 고등과장 幾世橋와 함께 경찰 100여 명을 동원해 차월곡을 찾는다며 정읍의 보천교 본소를 수색하기도 하였다(李英浩, 앞의 책, pp.31-35; 李正立, 앞의 책, pp.104-105).

95) 안후상, 「日帝下 普天敎運動-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하), pp.148-152.

첫째, 민중에 의해 만들어진 풍설은 보천교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 보천교가 한국의 독립을 꾀하고 새 왕국을 건설하려 한다, 는 풍설은 곧 혐의가 되었으나, 경찰은 앞의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당시의 풍설은 보천교에 의해서 먼저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풍설은 보천교 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활성화시켰다.

둘째, 풍설은 왜곡된 민족의식을 낳았다. 보천교 운동이 지향한 지상선경사회의 건설은 『정감록』과 강증산의 영향으로 형성된 종교적 교의에 가까운 의식화된 목표였다. 지상 선경사회의 건설을 곧바로 한국의 독립과 새로운 정부의 수립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민중은 지상 선경사회 건설을 한국의 독립과 새로운 정부 수립, 더 나아가 천자등극으로까지 해석하였다. 이처럼 왜곡된 민족의식은 비밀스런 교조직을 통해서 재생산되었고, 민중은 보천교를 매개로 하여 결집되었던 것이다.

민중들 사이에 떠도는 '고천제를 계기로 한국이 독립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다'라는 '풍설' 자체가 일제를 긴장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또한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민중들 사이에서 천자등극설과 같은 복벽주의적 사고가 잔존했던 것이 보천교의 성행 이유일 수는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교주가 천자로 등극한다느니, 하는 풍설이나 예언은 식민 통치자나 당시 언론을 주도하던 신진 지식인들에게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를 긴장케 한 결정적인 요인은 앞의 풍설을 퍼트리는 민중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1918년 제주에서의 민중 봉기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 더욱 그러했다. 당시의 신종교 문제는 교리나 교주의 문제라기보다는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교인들, 즉 민중의 문제였다, 는 해석은 이를 두고서 하는 말일 것이다.

일제를 긴장시키고 급기야 탄압과 회유를 구사케 한, 앞서 언급한 '풍설'과 '민중의 조직적인 움직임' 이 외의 보천교의 현실적인 활동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보천교의 '자금'과 관련이 있었다. 보천교의 자금이

1920년대 초에 국내외 민족운동가들에게 지원된 적이 있었다. 김철수나 임규의 증언대로, 국내외 민족운동 세력에게 지원된 6만 원이라는 거금이 보천교에서 나왔다. 이 같은 사례를 가지고서 보천교가 민족 문제에 적극 개입한 것처럼 해석되어지기도 하였다. 필자 역시 앞의 사례에다가 보천교가 물산장려운동에 적극 개입한 것을 가지고서 보천교가 민족운동 전면에 나섰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민족운동가들에게 지원된 보천교의 자금은 일종의 기부금이나 지원금에 가깝다. 그렇다면 보천교가 민족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다. 국내외의 민족운동 세력과는 달리, 민족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 시각과 방법을 달리하였을 뿐이다. 어쨌든 보천교가 민족운동 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당시의 일제는 완벽하게 포착하지 못하였다. 그렇다하더라도 국민대표회의나 의열단, 그리고 김좌진 등과의 '연계'를 파악했던 일제는 보천교의 '자금'을 크게 우려했던 게 분명하다.

일명 '청송 사건'이나 '김홍규 사건'은 보천교의 자금이 민족운동가들에게 지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벌인 일제의 수사였다. 일제는 수사를 통해서 교금이 민족운동 세력에게 지원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김홍규 사건'의 이면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김홍규 사건'의 시작은 방주 김영두의 교권 장악 음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교금을 탈취했다가 궁지에 몰린 김영두가 '고천제는 천자등극식'이라고 경찰에 밀고하면서 불거졌던 게 '김홍규 사건'이었다. '김홍규 사건'은 우연한 계기로 불거졌지만 거금을 수합할 수 있는 보천교가 비밀결사체라는 점, 거금이 국내외의 민족운동 세력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 등을 일제는 크게 우려하였던 같다.

일제는 '청송 사건'과 '김홍규 사건' 등을 계기로 보천교의 고천제를 무산시키고 교조직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는 일명 회유책을 구사하였다. 회유책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탄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일제의 기만책이었다. 교조직은 워낙 비밀스러웠기에 일제의 물리적인 탄압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종교 선도주의'라는 기만책도 교조직이 드러나야 구사할 수 있었다. 한편 일제는 보천교의 내분을 획책하는 기만책을 구사했다. 1921년 7월에 서울에서 김영두가 <태을교본부> 간판을 내걸도록 묵인한 것은 일제의 기만책의 하나였다.

일제의 탄압과 회유라는 기만책에 대한 보천교의 대응은 분명 한계가 있었다. 고천제의 개최를 담보로 교조직의 공개를 묵인했던 당시 상황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묵인'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최악의 조건 하에서 '고천제의 개최'와 '교단의 공개'라는 양자를 보천교로서는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개를 계기로 교단의 신진 지식인들은 보천교를 근대적 종교운동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그 와중에 신진 지식인들의 역할이 교단 안팎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보천교는 혁신과 보수라는 구도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혁신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내분이 시작되면서 보천교는 내외적으로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천교의 공개는 일제의 기만책에 대한 보천교 측의 무방비를 의미하며, 일제에게 있어서 보천교는 덜 위협적인 존재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공개 직후의 언론은 이 전 시기와는 달리 보천교를 사교(邪敎)로 인식하였다. 사교라는 인식은 공개 이전 시기의 언론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보천교가 독립운동 단체라는 인식이 언론에 의해서 확산되기까지 하였다. 공개 이전 시기의 언론이 그랬던 것처럼, 일제도 보천교를 독립운동 조직으로 보았다. 적지 않은 민중은 공개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보천교야말로 새 정부를 주도할 정도령으로 인식하였다. 민중의 보천교 인식은 공개 이전의 시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형식상 교조직의 공개를 선택하였지만, 차월곡 이하 보수 세력은 여전히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을 고수하였다. 공개돼 반(半)공인 상태였는데도 불고하고 일제의 물리적 탄압이 중단되지 않은 이유는, 보천교가 연원제를 유지하는 등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보천교의 공개는 보천교 스스로가 교조직의 정비를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탄압과 회유에 따른 것이었다.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교조직을 보호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한 고천제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 '보천교 공개'였던 것이다. 한편으로 보천교의 조직 운동 과정에서 나

온 자금 일부가 국내외의 민족운동가들에게 지원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보천교 운동의 지향점일 수는 없었다. 일제는 '김홍규 사건'을 계기로 민족운동가들에게 보천교의 자금이 지원될 가능성에 긴장하였지만, 그 자금은 '치성금'에 불과하였다. 그렇더라도 당시에 거금을 수합할 수 있는 민중 조직체인 보천교를 일제는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중뿐 아니라 민족운동가들도 전근대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보천교의 조직 및 자금의 가능성에 기대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민중을 조직하고 민족운동가들이 기대했던 보천교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교조직의 공개를 획책하였던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독립신문≫.
≪신한민보≫.
『受刑人名簿』, 光州地方法院 濟州支廳, 1918.
『刑事事件簿』第29號,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檢事局, 1918.
『大正十一年 公州地方法院 豫審判決文』, 1922.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八年·十三年』, 朝鮮總督府警務局, 1933·1938.
『普天敎一般』(『管內最近の狀況說明資料(全北)』 附錄. 大正15年 6月 發刊. 日本學習院大學東洋文化硏究所(友邦協會) 所藏).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敎』, 朝鮮總督府中樞院, 1935.
「濟州道 騷擾 事件」, 『暴徒史編輯資料高等警察要史』, 日帝警察極秘本 影印版.
南山太郎, 「秘密結社の解散(四)」, 『朝鮮公論』 第10券 10號, 通卷 第115號, 1922.10.
김재영, 「普天敎의 天子登極說의 實體」, 『한국종교사연구』 9, 2001.
김재영,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 31, 2007.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普天敎의 浮沈과 民族運動」,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서울: 국학자료원, 2002.
김정인,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 제주: 제주도연구회, 2002.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김철수, 「김철수 친필유고」, 이균영 편, 『역사비평』 5, 역사문제연구소, 1989.
김 탁, 「宗敎的 豫言은 실현될 것인가－증산교를 중심으로－」, 『정문연대학원논문집』 13, 성남, 1988.
閔泳國 編, 『道訓』, 井邑: 普天敎總正院典文司, 1987.
성주현,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서울: 국학자료원, 2002.
안후상, 「日帝下 普天敎運動-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상)」, 『남민』 4, 서울: 서해문집, 1992.
안후상, 「日帝下 普天敎運動－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하)」, 『남민』 5, 서울: 서해문집, 1995.
안후상, 「濟州 法井寺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 15, 서울: 서울대종교학연구회, 1996.
안후상, 「普天敎와 物産奬勵運動」, 『한국민족운동연구』 19, 서울: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8.
윤선자, 『韓國近代史와 宗敎』, 서울: 국학자료원, 2002.
윤이흠 외, 『日帝의 韓國 民族宗敎 抹殺策－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서울: 고려한림원, 1997.
이강오, 「普天敎」, 『全北大學校論文集』 8, 전주: 전북대학교, 1966.
李英浩, 『普天敎沿革史(上)』, 井邑: 普天敎中央協正院·總政院, 1948.
李正立, 『甑山敎史』, 金堤: 甑山敎本部, 1977.
趙景達, 「植民地朝鮮における 新興宗敎の 展開と 民衆－普天敎の 抗日と 親日」(上·下), 『思想』(2001.2·3), 東京: 岩波書店, 2001.
조경달, 『민중과 유토피아』, 허영란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2009.
崔公燁, 「林圭, 3·1運動 民族代表 48인중의 한 분」, 『全北人物誌』, 전북: 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 1984.
황선명, 「잃어버린 코뮌」, 『신종교연구』 2, 2000.

■ Abstract ■

The Opening of Poch'ŏn'gyo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The Opening Background

Hu-Sang An
Gochangbuk High School

Poch'ŏn'gyo clandestinely prepared Gochonje Ritual in 1921. There was a rumor that this ritual was intended to crown a new emperor. Such rumor made the public collaborative and the Japanese imperialism paid attention to such tendency. However, it was not a determinative factor to make the Japanese imperialism be in tension.

The Japanese imperialism came to be nervous by the organizational movement of the public that spread the rumor widely. This was especially true as the memory of the uprising in Jeju in 1918 did not appear. One activity of Poch'ŏn'gyo which made the Japanese imperialism nervous was religious money. 'Chongsong Event' or 'Kim Hong-gyu Event' was an investigation of the possibility that the religious money of Poch'ŏn'gyo would be given to nationalists. However, 'Kim Hong-gyu Event' was not simple in its background. It was derived from a conspiracy to dominate the religious power by Kim Young-du, a local leader. The leader who was pushed into a corner because he usurped the religious money informed the police on the Gochonje as an enthronement ceremony. It was coincidently surfaced, but the Japanese imperialism worried that Poch'ŏn'gyo which was able to

collect a large sum of money was an underground organization and the money would go into nationalist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Japanese imperialism intended to stop Gochonje using 'Chongsong Event' and 'Kim Hong-gyu Event'. In addition, it tried to reveal the secret religious organization to the world. As the organization was so secret, the physical oppress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m did not work. The deceptive system of 'religious leadership' would work only when the religious organization was revealed. Poch'ŏn'gyo did not give up the Gochonje as the center of the movement. The Japanese imperialism was prepared to permit Gochonje if the religious organization was opened. Therefore, Poch'ŏn'gyo was forced to select both Gochonje and opening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The opening of Poch'ŏn'gyo means it was unprepared against the deceptive plan as well as formal permission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Meanwhile, part of the religious money was given to nationalists, which was not a goal of the Poch'ŏn'gyo movement. Even so, the Japanese imperialism could not help paying attention to it as a national organization which was able to collect a large sum of money. Nationalists as well as the Japanese imperialism paid attention to Poch'ŏn'gyo. It was a pre-modern and abstract desire of the nationalists without modern consciousness. The nationalists expected possibility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and funds while the Japanese imperialism planned to open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weaken Poch'ŏn'gyo.

Key words: Poch'ŏn'gyo(普天敎), Gochonje(告天祭), Kim Hong-gyu(金洪奎), Chongsong(靑松) Event, Religious Leadership(善導主義), Opeing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Nationalists, Japanese Imperialism, Colonial Period

◎ 투 고 일 : 2012년 3월 4일
◎ 심 사 기 간 : 2012년 4월 4일~4월 14일
◎ 게 재 확 정 일 : 2012년 4월 17일